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런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영성하지만 감격과 환희의 눈물이 젖어있는 찬송이 있는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더듬거리고 앞뒤 문맥이 잘 맞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여 가슴만 치던 세리들과

창기들의 기도가 있는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벽화도 예쁘게 장식된 꽃꽂이도 없이 의자는 다 부숴져 앉을 자리는 불편해도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생각에 모든 것이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겸손한 사람들의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의 지식과 기교로 교만한 자들의 허영심을 즐겁게하는 설교가 아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영광스런 임재 앞에 나아가 그 분의 거룩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나와서 눈물로 외치던 옛날 선지자들의 그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불의의 재물과 교만한 마음의 장식물과 같은 헌금 대신 마음 속 깊은 곳에 숨겨놓은 순전함을 드리는 과부의 두렵돈으로 예배하고 싶습니다.

자신의 종교적 의에 도취되어 하나님을 소외시키는 바리새인들의 제사가 아닌 신령과 진정 안에서 드리는 믿음의 제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배시간이 10분만 길어져도 지겨워지는 삼류 코메디같은 예배가 아닌 예수님의 말씀에 온 인격이 매료되어 그의 발걸을 떠나지 아니하였던 마리아가 드렸던 바로 그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인간의 더러운 인격을 녹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새롭게 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끼리 소금치고 빛뿌리고 손뼉치는 그 곳 밖에서 울고 계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 분의 눈물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축도가 끝나면 남남이 되어 빨리빨리 자신의 자리도 도망가는 콘서트같은 예배가 아닌 예배의 끝남이 아쉽고 안타까와 자리를 뜨지 못한 채 그분의 임재 앞에 우두커니 서있던 여호수아의 경외심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유머▶

6.25가 돌아오면 어김없이 해야했던 숙제, 6.25 표어 지어오기... "무찌르자 공산당" "상기하자 6.25"등등,,,아이들의 표어는 거기서 거기. 그런데 평소 승부욕이 강한 한 아이가 써온 표어는 가히 압권이었다.

"6.25는 무효다. 다시한번 물어보자"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2002년 교회생활'가족으로 오신 예수님' 갈보리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익명성 -명예
제 4권 24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2년6월 16일
☎520-9464/021-292-1639.☒71 Khyber Pass Rd.(The Church of the Holy Sepulchre)		

엄마의 손톱



엄마는 갑자기 밖에 나가서서 장을 봐 오시고 한참동안 부엌에 계시더니 늦은 저녁 맛있는 불고기와 함께 풍성한 상을 차려 오셨습니다. 어?! 맛있는 상추쌈을 먹다 보니 엄마 손톱에 짙은 색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었습니다. 난 또 가만히 못 있고 웬 매니큐어나고 엄

마에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어울리지 않는다고... 아줌마들 진한 화장에 갖은 보석으로 다 치장하고 매니큐어 바른 모습을 제일 싫어하는 딸의 버릇없는 한 잔소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엄만 부끄러우신 듯 웃으시면서 핫도그를 팔 때 손톱에 낀 굵은 때가 사람들 눈에 보일까 염려스러워 어쩔 수 없이 칠했다고 하셨습니다. 순간 빨개진 내 얼굴...

이일 제일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일하시는 엄마. 그래서 엉망이 되어버린 엄마의 손. 그리고 그 보다 더 엉망인 엄마의 손톱. 난 괜스레 엄마에게 웃어 보이고선 상추쌈에 젖은 손으로 눈물을 훔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압니다. 10원짜리 하나도 아끼시는 내 어머니의 지갑이 불고기 한 상차림으로 빈 지갑이 되고, 하루종일 서서 장사하신 피곤한 다리로 장보고 부엌에서 요리하시고, 당신은 찬밥, 나는 방금 압력솥에 지은 콩밥을, 고기 한 점이라도 더 먹게 하고 싶으셔서 세상 엄마들의 그 흔한 말, 고기 별로 안 좋아하신다며 야채만 드시는.....

그건 당신의 딸인 나 때문임을. 더 좋은 것으로 주고 싶어하시는 내 어머니의 사랑임을.

하지만 엄만 모르셨습니다. 그날 밤 코골며 주무시는 엄마의 등 뒤에서 당신의 사랑에 꺾꺾대며 울던 내 울음소리를. 내 기도를...

그리고 얼마 후 비로소 난 알게 되었습니다. 코고는 엄마와 울다 잠든 딸. 거기에 우리 두 모녀를 사랑스레 품어주시고 지켜보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음을...

엄마가 딸에게

좋은 엄마가 되는 꿈을 꾸어라
아이가 아이를 키우면
제대로 자랄 턱이 없다
지혜와 인격이 풍부한 엄마가 되어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남의 고향
남의 취미
남의 가치관

주 일 예 배

영 광 송 Gloria	"Calvary"	다 갈 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er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도니라	인 도 자
*찬 송 Hymn	9장	다 갈 이
*성 시 교 독 Response Reading	15(시 51)	
*신 앙 고 백 Apostle's Creed	사 도 신 경	
교 회 소 식 Welcome & Announcements		
찬 송 Hymn	337 장	다 갈 이
기 도 Prayer		김영길 집사
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	누가복음 9:37-43(신 108)	인 도 자
어 린 이 시 간 Sunday School		
성 가 대 찬 양 Choir		나무십자가성가대
설 교 Sermon	"변화산 아래에서"	김성국 목사
찬 송 Hymn	383장 (마지막절은 일어서서)	다 갈 이
* 헌 금 기 도 Offeratory Prayer	(기도후 착석)	인 도 자
응 답 송 Response Song	'믿음 더욱 굳세라' (1절:권용일 집사외 2절:다같이)	다 갈 이
위탁의 말씀 Encouragement		인 도 자
축 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2002년 교회표어
"가족으로 오신 예수님"(엡 5:21)
<실천사항>표현하는 사랑만이 아름답습니다
*기도하는 부모 *답살들은 애정표현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교회를 다녀 보신후 결정하
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 낮 12:00 <수요예배> 저녁 7:30 <아동, 학생> 주일 낮 12시 <청년부> 토 오후 6시

교 회 소 식

- *이번주 21일은 목정발과 산야에 희디 흰 개망초꽃으로 뒤덮힌다는 '하지'입니다. 예로부터 '하지' '전삼일·후삼일'이라 해서 그때가 모내기때 적기로 여겼습니다. 이제부터 노루 꼬리 만큼씩 낮의 길이가 밤보다 길어 지겠지요?
1. 교우소식
*한국으로 출국(지난 12일)
이진례 집사(규정, 규형 할머니)
손정훈(청년부, 윤한나 집사 아들)
 2. "약속의 아비"기도회: 아버지는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아버지의 기도가 든든한 가정을 이루어 갑니다 <일시> 화요일 저녁 7:30 <장소>교회
 3. Donation 감사합니다
1)초등부 교실용 전기 히터 봉헌 2)아동부 달란트 잔치용 문구, 장난감 봉헌
3)cassette tape 1000개 봉헌 4)주방용 그릇 봉헌 5)Hall 계단 제작 봉헌
그외 여러 알게 모르게 봉헌하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4. 새벽기도: 새벽에 조깅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대부분 운동을 안해도 될 보기 좋은 체형들이었습니다. 역시 부지런한 사람들이 체형도 좋습니다
*자택과 가장 가까운 교회의 새벽기도회에 참여 하십시오
*우리교회는 금요일 6:00 AM에 드립니다:1주일 1번만이라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바랍니다.
 5. 주일설교 태원(무료): 필요하신 분은 문서선교 담당(김영길 집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6. 구역장: 구역장께서는 주일 결석구역식구에게 준비된 Pre paid 봉투를 이용하여 주보를 발송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천마디 설교보다 더 큰 멧세지"

"히딩크의 피구 위로"



(포르투갈과 승리 후 이영표, 송종국 선수의 기도)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한자의 믿음은 천마디 멧보다 더 효과적인 전도입니다』

『피구! 너무 슬퍼하지 말게나 자네가 못하게 아니라 우리 한국이 너무 셋기 때문 일세~~~』

◆6월의 예배위원◆

일자	주일기도	헌금위원	주일안내	Tea Time
2일	김동숙	사카시다	권용일, 이지영	전병주, 정덕수
9일	김순자	신경화	박일영, 김종건	권용일, 김성국
16일	김영길	신영화	박정자, 정희자	최재학, 김교섭
23일	김종건	양경배	박상옥, 이금선	김영길, 김종건
30일	노은숙	윤형권	박병민, 이기중	박상옥, 박일영